

스리랑카 불교와 불자들



◇본당에 조각된 불보살들은 아주 정교하다.



◇이누디라푸라 유적지 중심부에 세워진 높이 55m의 거대한 다고바(탑)인 루완델리.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고바로 알려져 있다. 주위의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의 기지를 옮겨심은 것이라고 한다. 오른쪽에는 부처님의 생가를 모신 푸파리다다고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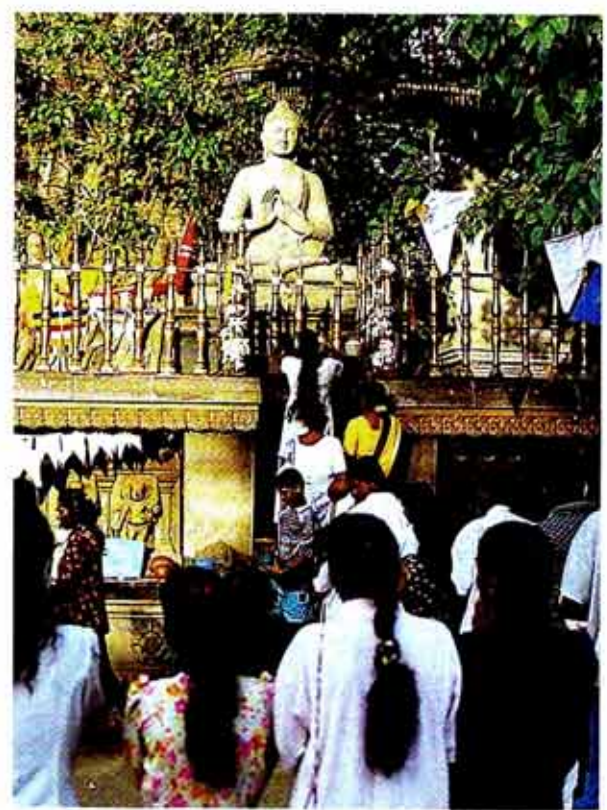


◇높이 17.5m, 길이 52m, 넓이 18m의 람카텔리카. 사막처럼 건조한 땅에 거목처럼 우뚝 솟아 있다. 탑 안에 들어서면 머리없는 거대한 입상이 있다.

계 안지키는 스님 가사 못입는다

에메랄드 빛 인도양의 푸른 물결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섬. 그 모습이 마치 인도 대륙이 떨어져나온 한 방울 눈물 같다는 섬. 스리랑카.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히 살아있다. 기원전 3세기 신타라 왕국에서부터 불교 국가로 발전해온 이 나라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이 불교도(75% 정도)이며, 지금까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오고 있는 거대한 불교 유적들은 유네스코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1800만의 인구에 총면적 65,609km² 남한의 3분의 2정도인 이 섬나라의 역사는 우리 나라만큼이나 기구하다. 16세기 후반부터 포르투갈, 네델란드, 영국 순으로 암흑의 식민 통치를 받아 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독립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에 가까운 식민 통치 기간에도 1만 5천여 개의 사찰과 3만 여명의

스님들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가꾸어 왔다. 이 나라에 있어서 불교는 종교이면서 국가 이념이었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준 자주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스님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결코 맹목적이거나 수직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스님은 스스로가 철저한 지계 정신으로 재가자들로부터 신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이 확고히 뿌리내린 데는 재가자의 의식도 크게 작용했다. 계율을 지키지 않거나 수행을 게을리하는 스님은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데, 계를 지키지 않는 스님은 가사를 입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출가자는 재가자들, 철저한 부처님의 제자인 이들에게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구별도 큰 의미가 없다. 소승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승이



◇석기모니 부처님이 세번따로 방문해 설법하신 곳인 케나리아 라 자타(해변)사원.

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반문한다. 남방불교라고 해서 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대자 대비의 마음이 없었느냐고. 이 나라의 불자들의 신앙은 곧 생활이다.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꽃과 향을 공양하는 것은 돌봄이거니와, 어느 곳에서나 기도과 독경을 한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명상을 할 때조차도 편한 대로 다리를 펴거나 벽에 등을 기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도 불경스러워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성과 속이라는 구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대로 부처님에 대한 경배이고 기도인 것이다. 신타라 려(스리랑카 역법)으로 매일 보름(포아데이)은 모든 사람들이 사원을 참배하는 날이다. 법정 공휴일인 이날은 읍주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경배의 날이다. 이밖에도 스리랑카에는 연중 다양한 형태의 불교의식을 행한다. 그 중 5월의 위사(vesak utsava, 부처님 오신 날), 6월의 포순(ponn: utsava, 불교가 전래된 날), 그리고 7월의 아살라(asala utsava)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마하 반야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날인데, 가장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아살라 축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리랑카의 불교도들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YMBA(청년불자연합회) 같은 단체는 불교부흥운동과 함께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과 함께 따르는 스리랑카의 사람들, 그들의 경은하면서도 힘찬 생활은 보살의 모습이였다. 스리랑카=고영태 기자(ybgo@buddhapis.com)



◇폴른나루와의 불치사에 있는 석불입상.



◇유일한 신앙 대상인 석기모니불에 공양을 올리는 스리랑카인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이런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분해됩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잔이 깔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공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캡슐사)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명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이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링 (집21^기 순금도금)
₩ 80,000

· 전화를 주시면 화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디로그 氣속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팩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김진순)

수정피리드 ₩35,000	수정수정만약목걸이 ₩30,000	은희안(팔) ₩45,000	은희안(목걸이) ₩35,000	자수실 목자목걸이 ₩70,000
불 벨트 ₩55,000	불 목대 ₩35,000	후프다이 ₩35,000	목걸이 희안이 ₩45,000	불 희안이목걸 ₩45,000
희안이마이핀 ₩35,000	수정목걸이 목걸이 ₩77,000	희안이마스크 ₩12,000	수정목걸이 ₩35,000	불 지갑달린 ₩18,000
희안이신 불피스 (3각스) ₩10,000	수정목걸이 ₩22,000	연수경 ₩98,000	자수경 ₩135,000	불 밴드 ₩18,000
		불밴드 ₩9,000	은목걸이 ₩8,000	목욕밴드 ₩12,000

※ 萬事亨通 氣 달마도

달면
정가 ₩ 20,000

월면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萬발생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氣·運 건강이 좋아집니다.